

## 이로에 매화도 히라미즈사시

이 미즈사시(물그릇)는 교야키의 대성자인 노노무라 닌세이의 작품입니다. 17세기 다기의 원형이라 할 만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아 1950년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닌세이는 17세기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교토에서 활약한 도예가입니다. 아리타(현재의 사가현)와 세토(현재의 기후현)에서 수련을 한 후, 교토에서 소와류 다도의 창시자인 가나모리 소와(1584~1656)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가마를 구축했습니다. 그 후 닌세이는 이 미즈사시를 비롯한 뛰어난 다기를 제작하여 조정에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즈사시는 차를 끓이는 가마에 물을 보충하거나 찻잔을 행구는 데 사용하는 차도구입니다.

이 매화나무는 ‘이로에’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로에는 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에 색유로 밑그림을 그리고, 다시 저온에서 재벌구이하여 두 겹의 유약을 정착시키는 기법입니다.

이 미즈사시에서 볼 수 있듯이 닌세이는 다채로운 색상의 문양이 그려진 바탕부분에 약간 노란빛이 도는 흰색 유약을 두껍게 덧바르는 기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빨강, 검정, 초록색의 유약으로 매화나무와 꽃을 그렸으며, 곳곳에 금가루 등을 이용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줄기와 가지를 덮은 지의류를 연한 황록색으로 그려낸 고목 표현도 매우 훌륭합니다. 또한 몇몇 매화꽃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는 은가루 등을 사용해 약간 광택이 있는 회색으로 완성했습니다.